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52화)

아무리 어려운 경지에 봉착해도 당황하지 않아

9절: 감사하는 생활

- 1) 11년의 군생활 마감과 점점 가혹해지는 연단
- 2) 사업을 시작하다
- 3) 이교심을 받으며 은혜를 숨기는 생활
- 4) 영의 흐름을 깨닫다
- 5) **육적으로도 당할 자가 없어**
- 6) 생활 전반이 신앙으로 매진

5) 육적으로도 당할 자가 없어

일곱째 천사가 콜라, 사이다 장사를 할 때 서울 거래저에서 수급을 하고 늘 밤늦게서야 소사 신앙촌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한번은 수급이 잘 되어 거금을 가지고 달빛이 으스스한 밤 12시경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강도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공고하신 사정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소사 신앙촌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강도 세 명이 불쑥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이대면서 "짜짜 말고 서라,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내 놔라!"고 하며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타고 가던 자전거를 세우면서 큰 소리로 여유만만하게 "보아하니 너희 놈들은 칼 정도를 가지고 까부는데, 총을 가졌다면 몰라도 칼 정도로는 계산 착오야! 어디 한꺼번에 다 덤벼봐." 하고 크게 호통을 치면서 도로 북판에서 싸울 자세를 취하고 버티어 섰습니다. 그러자 강도 세 놈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덤벼들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덤벼지 못하거든 저리 비켜!" 하고 크게 호통을 치고는 자전거를 끌고 태연히 앞으로 몇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놈들은 잠깐 우물쭈물하면서 앞으로 피하는 듯하더니, 다시 덤빌 생각이 들었는지 도전적인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다시 자전거를 고정시켜 세우면

서 "너희들, 오늘 잘못 걸렸어. 어디! 덤빌테면 덤벼 봐." 하며 자신만만하게 버티고 서서 그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다. 그들은 쉽게 덤벼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길옆으로 비켜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다시 자전거를 끌고 신앙촌 쪽으로 계속 걸어갔는데 그들 역시 계속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끌고 가던 자전거를 재빨리 타고서 힘차게 페달을 밟아 속력을 내며 달렸습다. 신앙촌에 도달하여 신앙촌 경비들과 함께 뒤따라오는 강도들을 찾아 나섰으나 그들은 어느새 도망가 버렸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난관 맞닥뜨려도 정신 잃지 않고 여유 가지면 그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사실 일곱째 천사는 싸움 같은 것은 해보지 않았지만 학생시절부터 기계제조(운동)를 늘 하여 몸이 민첩할 뿐 아니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연단된 강한 마음으로 인하여 아무리 어려운 경지에 봉착해도 당황하지 않으며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행동에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은 준장으로 있었을 때 외출을 나왔다가 혼자서 강패 열다섯 명과 격투를 벌여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명동 미도와 양풍부에서 장사를 하시는 사촌이모님이 계셨는데 젊고 미모인지라 최근덕거리는 사내들이 많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찾아 갔을 때도 한 건달 녀석이 이모님께 관한 시비를 걸면서 최근덕거리고 있다가 이모님이 냉정하게 대하자 뺨까지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일곱째 천사는 그 사내의 맥살을 잡고 끌어내어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쳤습니다. 놈은 위기에 처하자 "형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너의 부모님이 계시느냐?"하고 물으니 안 계신다고 하기에, "그럼, 삼촌은 있냐?"하고 물으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같이 가자고 하여 갔더니, 회현동 해군부대 맞은편에 있는 식당으로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주인인 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슬그머니 자리에서 물러난 건달은 열다섯 명쯤 되는 패거리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창문 너머로 보게 된 일곱째 천사는 얼른 식당주인에게 뒷문이 어디냐 묻고 뒤안으로 해서 담장을 넘었습니다.

숫자가 많은고로 처음엔 몸을 피해야겠다고 서울역 쪽으로 달음질쳤습니다. 그러나 한참 정신없이 달음박질치다가 보니 막다른 양동 골목에 부딪쳐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골목 벽을 등지고 열다섯 명의 강패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강패들은 모두 손에 번두는 단도를 들고 있었지만 일곱째 천사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그들과 격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한꺼번에 십여 명이 날쌔게 덤벼드는데도 일곱째 천사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공격해 오는 상대들을 맨 주먹으로 막아냈습니다. 중학교시절 기계제조로 빠른 몸놀림과 단단한 체격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공중에 뛰어올라 두발 당상치기가 유행하였는데 그때 마라톤을 하면서 단련된 다리 힘으로 평소 발차기 연습도 많이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발에



일곱째 천사의 육군 장교 중위 시절 모습

한방 맞으면 아무리 장사라도 나가떨어질 정도로 강한 발길질과 펀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과 주먹으로 달려드는 패거리와 한참 싸우다보니 십여 명은 근처에 쓰러져 뒹굴고 나머지 놈들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일곱째 천사는 가랑이 부분을 비롯하여 바지 군데군데가 칼에 베어져 있다는 사실과 주위에 구경꾼들이 몰려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한병 백차가 와서는 일곱째 천사를 한병대 본부로 데려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한병들이 한참 동안 일곱째 천사의 싸움 모습을 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상대방의 어깨를 밟고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몸을 거꾸로 한 비위씩 회전하면서 두발당상치기로 때려눕히면서 발이 거의 땅에 닿지 않고 칼을 든 열다섯 명을 모조리 격파시키는 신기에 가

까운 몸놀림에, 신고 받고 급히 출동한 헌병도 격투를 말할 생각도 못하고 냇을 잃고 한참 동안 구경했던 것입니다.

헌병은, "장교님, 언제 그런 무술을 배우셨습니까?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고 감탄하며 말하면서 "하지만 장교님이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인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헌병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지프차에 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당시에 헌병대 삼급기관에 집안 아저씨를 되시는 분이 계셔서, 헌병대에서 전화를 잠시 빌려 쓰자고 하여 종주요 형님 될 되는 조흥만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조회성입니다. 여기 15CID(서울육군범죄수사단)에 끌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모님을 강패들이 건들기에 혼 좀 내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 헌병대장을 바꿔봐."

일곱째 천사로부터 수화기를 건네받은 헌병대장은 차렷 자세로 "예, 예, 알았습니다. 본부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하고 통화를 마치고, 더 이상 일곱째 천사를 조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병들은 헌병 백차로 영등포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도 정신을 잃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출소와 서로 협조하여 계속 신앙촌 마을의 평화직업을 해 나감

한편 1962년경에 소사 제1신앙촌에서 덕소 제2신앙촌으로 공장과 교인들이 거의 옮겨가고 영도남에서도 덕소로 가시게 되자 소사 신앙촌은 기강과 질서가 무너져 말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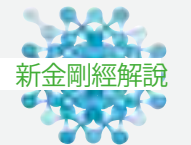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답지 않게 술, 담배가 횡행하고 밤늦게 고성방가가

만무하였습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는 '영모담'에서 피와 땀의 결정체로 이뤄 놓은 신앙촌인데 이렇게 기강이 문란하고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강을 바로 잡는데 나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앙촌에 거주하고 싶은 자는 모두 오만제단에 다녀야 하며,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선 신앙촌에 살고 있는 강패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전도한 뒤 새벽마다 청년들을 시켜 그 강패들을 깨워 오만제단에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신앙촌 거리를 지나가거나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무리 체구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일지라도 단호하게 훈계를 하였으며,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엔 고랑창에다 처박은 다음에 항복을 받을 때까지 굶듯발을 목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자연히 신앙촌 거리를 지나갈 때만은 술을 먹고 비틀거리거나 담배를 물고 가는 추태가 없어져 서서히 기강이 바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휘어잡자 일부 불만을 가진 자들이 인근 파출소에 가서 불평을 늘어놓아 파출소에서는 일곱째 천사를 불러서 이모저모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곱째 천사는 "당신네들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해 드리는데 왜 그러시느냐?"며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에서 술, 담배가 허용되고 고성방가와 강패들의 패싸움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파출소와 서로 협조하여 계속 신앙촌 마을의 평화직업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29>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第十四

편견과 아상을 떠난 마음 (8)

須菩提 如來是真語者
수보리 여러시진어자
眞語者 如語者 不誑語者 不異語者
실어자 여러자 불광어자 불어자
須菩提 如來所得法 此法無實無虛
수보리 여러스득법 차법무실무허
수보리아, 여러(석존)는 바로 진실한 말씀을 하는 이며, 사실을 말씀하는 이며, 말씀다운 말씀을 하는 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고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 이니라. 수보리아, 여러(석존)가 얻은 이 법은 참도 없으며 거짓도 없다.

[해설] 석존은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려고 경전에서 수없이 바른 말씀을 했지만 이를 알아듣는 제자가 없었고, 이 금강경에서도 스스로 부처가 아니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이 경의 올바른 뜻을 알고, 혹은 석존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고 할까 봐 여기에서 석존이 아무 이상이 없음을 제자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존이 비록 부처님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석존만큼 높은 경지의 볼도를 이룬 이가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평범한

인간의 경지는 훨씬 넘어섰으므로 석존이 얻은 법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경전으로 열반경을 보시겠습니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15권

범행품(梵行品) 제20-2

復次 善男子 言本有者
부차 선남자 언본유자
我初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
我初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
아초득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시
有諸純根 聲聞弟子 以有純根聲聞弟子故
유제둔근 성문제자 이유둔근성문제자고
不得演說一乘之實
불득연설일승지실
言本無者
언본무자
本無利根人 中象王 迦葉菩薩等
본무이근인중상왕가섭보살등
以無利根迦葉等故 隨方便開示三乘
이무이근가섭등고 수선방편개시삼승
또 다시 선남자여, 말씀에 본래부터 있었다고 한 것은 내가 처음 무상등정각을 얻었을 때 성문의 제자들의 머리(근기)가 모두 둔함이 있다고 한 것이며, 머리가 둔한 성문의 제자들이 있으므로 일승의 진

실한(범음) 연설할 수가 없었느니라. 말씀에 본래부터 없었던 것은 본래부터 사람들 중에 코끼리 왕과 (같은) 가섭보살들이 없었는 것이며, 가섭보살과 같은 영리한 (제자)가 없었으므로 방편을 따라 삼승의 (범)을 열여 보인 것이니라.

[해설] 이같이 석존은 득도 후 49년, 즉 48년간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49년째 나이가 80이 되어 입적할 때에 가섭에게 바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사람들의 머리가 석존의 참뜻을 알 정도의 근기가 아니므로 방편의 말씀을 했다고 열반경뿐만이 아니고 범화경의 방편품에서도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 제자들과 대중들은 이해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범화경에서는 여러(미륵부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일승의 진실한 바른 법을 대중들에게 말씀할 때에도 머리가 둔한 성문의 제자들인 현 세상의 스님들과 또한 그 무리를 덮어놓고 따르는 박복(薄福)한 중생들은 오히려 법을 깨고 방해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범화경의 방편품을 보겠습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1권

방편품(方便品) 제2

汝等勿有疑 我爲諸法王 普告諸大眾
여등물유 의 아위제법왕 보고제대중
但以一乘道 教化諸菩薩 無聲聞弟子
단일일승도 교화제보살 무성문제자
汝等舍利弗 聲聞及菩薩 當知是妙法
여등사리불 성문급보살 당지시묘법
諸佛之秘要 以五濁惡世 但樂著諸欲
제불지비요 이오탁악세 단락저제욕
如是等衆生 終不來佛道 當來世惡人
여시등중생 중불구불도 당래세악인
聞佛說一乘 迷惑不信受 破法隨惡道
문불설일승 미혹불신수 파법타악도
有 愧清淨 志求佛道者 當如是等
유愧淸淨 志求佛道者 當如是等
유참괴청정 지구불도자 당유어시등
廣贊一乘道 舍利弗當知 諸佛法如是
광찬일승도 사리불당지 제불법여시
以萬德方便 隨宜而說法 其不習學者
이萬德方便 隨宜而說法 其不習學者
이만덕방편 수의설법 기불습학자
不能曉了此 汝等既已知 諸佛世之師
불능曉了此 汝等既已知 諸佛世之師
隨宜方便事 無復諸疑惑 心生大歡喜
隨宜方便事 無復諸疑惑 心生大歡喜
수의방편사 무부제의욕 심생대환희
自知當作佛
자지당작불
자지당작불
너희들은 의심치 말라.



옛날 석가세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하었다

내가 모든 범양(보살)을 위하여 대중에게 알려노니, 다만 일승(一乘)으로서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므로 성문(석존)의 제자는 없으니 너희들과 사리불 그리고 성문 및 보살이 마땅히 알아라.

이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의 비밀한 요지니라.

오락악세(현세상)의 사람들은 욕심에 집착하고 즐거움만 찾는데, 이같은 중생은 끝내 불도를 구하지 못하여 악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상에 (미륵)부처님께서 일승(一乘)법을 설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미혹하여 믿지도 아니하므로 법을 깨뜨리고 악도에 떨어지리라.

또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깨끗한 사람이 불도를 구하는데 항상 이런 사람을 위하여 널리 일승도(一乘道)를 말씀 할 것이니라.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라. 모든 부처님의 법은 이와 같이 만 역의 방편으로서 때에 따라 다양하고 적당하게 법을 말씀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뜻을 배워도 잘 알지 못하는 지는 이것을 (즉 이승, 삼승은 방편으로 말씀한 것이며 진실은 일승이라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다 알았으니 모든 부처의 세상에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승과 삼승을 말씀한 것은 방편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는 의심치 말고 큰 기쁨으로 일승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해설] (다음호에 계속)*

명鍾